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포은문화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포은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 목	동네슈퍼
수상내역	대학일반부 동상
출품자	박진아
공모분야	홍보콘텐츠
주제 및 목적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들에게 고려 말, 조선 초 포은 정몽주와 이성계의 사상적 갈등을 쉽고 흥미 있게 알려준다. · '유교문화'라는 주제는 일반 대중들이 '어렵고', '무겁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포은문화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포은 정몽주의 '생각'을 이야기 책자[소설]로서 쉽게 전달하려 한다. · 이야기 책자[소설]를 통해 포은 정몽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이 축제 참여로 이어져 포은문화제 참여율을 높인다.

동네슈퍼

1.

며칠 째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올 듯 흐린 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여 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시선을 밑으로 옮겼다. 끝도 없이 이어진 꾸불꾸불한 길과 뺨뺨이 붙어있는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각기 제 색깔을 드러내려 하지만, 날씨 때문인지 탁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마당에 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이 마을이 모두 내 것인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가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하루의 일과처럼 마당에 서서 마을을 한참동안이나 내려 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바지 안에 넣어둔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렸다. 휴대폰에 표시 된 시간을 보고 펄쩍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꾸불꾸불한 길로 향하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파란 철대문을 열자 끼이익 하는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들린다. 평소와 달리 늦장을 부려 조금 급한 걸음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는다.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은 나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출, 퇴근을 할 때마다 이마의 맺힌 땀방울만큼 후회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내리막길 중간 알록달록한 철대문들이 열리면서 아는 얼굴들이 등장하지만 버스를 놓칠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걸음을 계속한다. 내리막길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 동네 유일한 슈퍼이자 동네의 토박이인 ‘동네슈퍼’에서 정씨아저씨가 나온다.

“오늘은 늦네?”

“그렇게요. 오늘따라... 버스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충 인사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던졌다.

“이거 갖고 가야지”

정씨 아저씨는 매일 아침 내가 사는 크림빵을 던져주었다.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버스를 놓칠 새라 인사를 하고 다급한 걸음으로 정류장으로 향했다.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후,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슈퍼로 향했다. 몇 개 없는 가로등으로 인해 항상 어두운 길을 동네슈퍼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다. 슈퍼안이 훤히 보이는 슈퍼의 철문을 열고 정씨아저씨를 찾았다.

“정씨아저씨! 저 왔어요.”

지직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들리고 슈퍼 구석에 있는 방에서 정씨아저씨가 나온다.

“왔어?”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밖에 있는 평상으로 향했다. 누런색의 바닥재가 덮힌 오래 된 평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나는 오늘 발걸음이 가벼웠던 이유를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월급 올랐어요.”

“응? 돈 많이 받는다고? 잘 됐네”

“네. 그래서 저 이번에 다른 동네로 이사갈 것 같아요.”

“이사? 언제 가는데?”

“아마 한 달 내로 나갈 것 같아요. 집은 그 동안 짬짬이 알아보기도 했구요. 짐도 얼마 없어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빨리 나가. 왜? 이 동네가 싫어?”

“네? 아이, 싫다니요. 싫은 건 아니고...”

“나는 이 동네에서 벌써 40년 넘게 살았어. 근데 여기가 불편하기는 해도, 이런 동네가 없어.”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음...”

“됐어. 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아, 아저씨 아니라니까요. 저 이 동네 좋아요. 아저씨도 좋구, 옆집 할머니도 좋구요.”

“알았어, 알았어 하하하하”

밤이 깊어지도록 정씨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녘이 돼서야 페인트칠이 벗겨진 파란 철대문으로 들어갔다.

2.

며칠 전까지 우중충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좋다. 회사 일로 하루하루 바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집을 정리하고 있다. 큰 차를 빌리지 못해서 몸이 고생해야겠지만 그 마저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최근엔 기분이 좋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동네슈퍼로 향했다. 슈퍼에 가까워 질 때쯤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혼자 사신지 오래 된 할머니였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처럼 걱정도 해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신 분이였다. 이 동네에서 정씨 아저씨를 제외하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였다.

“할머니!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뭐 사시러 나오셨어요?”

“아구, 왜 안보였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고 있고?”

“네, 그럼요. 할머니... 저 이사가요...”

“이사? 이사를 왜 가? 어디로 가는데?”

“좀 멀리 가요. 그동안 잘 챙겨 주셨는데...”

“아니여.. 좋은 데로 가면 좋은 거지.. 아휴.. 그래 가끔 놀러오고... 밥 먹으러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가 오늘따라 더 낮아진 것처럼 보였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이사를 가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계속 보다 다시 슈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씨아저씨가 슈퍼 앞 평상에 앉아계셨다.

“아저씨. 저 왔습니다.”

“어, 왔어?”

“네, 날씨가 좋죠? 그 동안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매일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이사 준비는 잘 돼가고?”

“네, 오늘 내일 조금씩 짐 옮기려구요.”

“그래. 잘 해. 뭐 빠뜨리지 말고.”

"빠뜨리고 할 것도 없어요. 워낙에 짐이 없어서"

정씨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사 차 올 시간이 돼서 주섬주섬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데 왠지 모를 먹먹함이 생겼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던 이 가파른 경사도 이제는 몇 번 오르지 않을 생각을 하니 발길이 더 무거워진 것같이 느껴졌다.

3.

버스의 차임벨이 울리고 곧 버스에서 내렸다. 이사한 후에 한 번 오려고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잘 찾아오지 않게 됐다. 이사 후에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익숙해 저서 시간을 내서 오랜만에 동네에 찾아 왔다. 조용하고 사람 없는 동네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음을 계속했다. 계속 걷어가 동네입구에 도달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있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나가려 했는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날 잡았다.

“잠시 만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조금 날카로운 말투로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낯설어 한 걸음 뒤로 발을 뺀 후 대답을 했다.

“네? 아... 아니요. 저는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렇군요. 이 동네,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졌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에 처음 느꼈던 경계는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네? 여기가요? 그러면 주민들은...”

“한 명씩 얘기중이에요. 근데 뭐... 재개발지역으로 이미 정해졌으니 거의 다 확정된거죠.”

남자는 잠시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듯하더니 다시 자신의 무리로 돌아갔다. 나는 한 동안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동네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숨이 조금씩 차기 시작할 때 동네슈퍼가 보이기 시작했다. 슈퍼 평상에는 정씨 아저씨뿐만 아니라 익숙한 몇몇 얼굴들이 보였다.

“아저씨!”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내 부름에 고개를 돌렸다. 오랜만에 보는 아저씨의 얼굴은 예전처럼 좋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동네입구에 서 있었던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았다.

“잘 지내셨어요, 아저씨?”

“그렇지 뭐. 왜 이렇게 오랜만이나. 자주 오라니까.”

“하하... 어찌다 보니... 근데 동네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재개발 지역이 됐다느니 뭐라고 하던데...”

정씨 아저씨가 묻는 내 안부도 대충 대답하고 동네 입구에서 들은 얘기를 물어보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들 멋대로 와서 그러는거다. 신경쓰지 마라.”

“그래요? 아저씨 그런데...”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었지만 계속 물어보려 하던 그 때, 동네입구에서 봤던 사람들이 슈퍼 쪽으로 오고 있었다. 정씨 아저씨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아저씨는 평상에서 일어나 그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다.

“왜 자꾸 어슬렁거립니까?”

정씨 아저씨는 그 사람들이 더 다가오는 것을 막기라도 하는 듯 굳건히 서서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말을 꺼냈다.

“나는 내 일 하는 겁니다? 나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 좋아서 하는 일 아닙니다. 빨리 집 빼거나 하세요.”

“누구 집을 빼? 내가 여기서 산 세월이 몇인데! 누구 마음대로 집을 빼!”

“나한테 화 내지 말라고요. 나한테 화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이튼 빨리 빼세요.”

“여기가 집인데 자꾸 뭘 빼라는 거야? 나는 안 움직이니깐 니들 마음대로 해봐!”

처음 보는 정씨 아저씨의 화내는 모습에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저씨는 한 참 열을 내더니 뒤를 돌아 슈퍼로 들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아저씨를 따라 슈퍼로 향했다. 아저씨는 슈퍼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간 듯 슈퍼 안은 조용했다.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피해야 하는지 한동안 생각하다가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드르륵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아저씨”

“...다음에, 오늘 말고 며칠 후에 다시 와라. 고기 사줄게.”

아저씨는 피곤한 듯 문을 열고 들어온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모습에 답답함과 걱정이 돌아가라는 아저씨에 말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섰다.

“어찌실려구요.”

“뭘 어째. 그냥 있는 거지.”

“아저씨...”

“왜 잘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걸 왜 다 바꾸려고 하는지...”

“다른 데 가실 데는 있으세요?”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아무데도 안 가!”

아저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누우셨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온다는 말을 남기고 일어났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내려가면서 아까 정씨 아저씨와 얘기했던 사람을 봤다. 동네 주민인 듯한 사람을 데리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 때 관망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정씨 아저씨 걱정해 다시 동네로 왔을 때 항상 조용하고 평화롭던 동네 같지 않았다. 저번에 왔을 때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얘기를 하고 있더니, 오늘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달라진 동네 분위기에 나까지 불안함을 느껴 동네슈퍼로 달려갔다. 늦은 새벽이 아니고서야 닫히지 않았던 슈퍼의 철대문이 해가 쨍쨍한 시간임에도 굳게 닫혀있었다. 혹시 슈퍼 안에 정씨 아저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철대문을 세게 두드렸다. 철대문의 시끄러운 소리가 오랫동안 울렸음에도 슈퍼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슈퍼 앞 평상에 앉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오르막길 위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위쪽에서 옆집 할머니가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

낯설어진 동네에 옆집 할머니의 등장은 불안한 내 기분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다.

“으? 아이구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죠? 근데 어디가세요? 그 짐들은 뭐예요? 안 무거우세요?”

할머니는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계셨다. 구부러진 등을 하시고 두 손에 든 짐이 힘에 겨우신 듯 걸음을 멈추시고 땅에 짐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곤 나를 바라보시면서 조곤하게 말씀하셨다.

“많이도 물어보네. 어딜가긴. 이사가지.”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나는 당황했다.

“이사요? 할머니 이사가세요?”

“나만 가나. 다 가지. 집 민다는데 어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만이 가득해 보였다. 항상 챙겨주셨던 할머니의 힘든 모습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더 급해졌다.

“...어디 갈 곳은 있으세요?”

“내 걱정 말고, 밥이나 잘 챙겨먹어. 살이 쪼 빠졌네. 아구 너무 늦었다. 가야겠다.”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딜 가시겠다구.”

“됐어. 그냥 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다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들려 했지만, 할머니의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구부러진 등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점이 되어 사라지고 멍하니 평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쯤 정씨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지친 기색이 가득한 어두운 표정으로 슈퍼를 향해 오고 계셨다. 아저씨를 부르려 했지만 선 듯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아저씨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는 나를 아저씨가 먼저 불러주셨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슈퍼로 들어가 쓴 마음을 달래려 술을 가지고 나오셨다. 혼자 한 잔 한 잔 들이키던 아저씨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내일, 철거 회사 사장만나기로 했어. 나는 말이다. 여기서 나고 자랐어. 이 슈퍼가 작고 초라해보여도 우리 아버지부터 이 동네 지켰던 가게야. 이 동네가 불편하고,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동네를 없애는 건 안돼. 안될 일이야. 더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가게들이 들어오는 거 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없애는 건 안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둘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내일 이 사장이랑 얘기해보고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지.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너는 이제 이 동네사람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아침마다 우리 집 빵 생각나서 그러냐?”

아저씨는 우울해진 나의 모습에 일부러 밝은 어조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슈퍼로 들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니 곧 뭔가를 던져주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먹었던 빵이었다.

“우리 집 빵이 맛있지?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 특별히 공짜로 주마.”

아저씨는 미소를 띄며 말하시고는, 다시 잔을 드셨다. 아저씨가 술 마시는 걸 계속 보니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5.

주말을 맞아 평일동안 쌓인 피곤을 풀기 위해서 늦게까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멍기적 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특별히 누구에게 연락 올 곳이 없어서 받지 말까 잠시 고민하다 팔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다. 자고 있었나?”

“아저씨??”

갑작스러운 연락에 이불에서 일어나 머리를 다듬었다.

“어쩐 일이세요?”

“그냥... 시간있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

“아, 그럼요. 제가 슈퍼로 갈게요.”

“아니, 아니, 슈퍼 말고 오늘은 밖에서 만나자. 나도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네, 그럼 준비하고 연락할게요.”

항상 만나던 슈퍼 앞 평상을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아저씨의 대답은 뜻밖이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일어서서 화장실로 향했다. 저번 만남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준비를 끝내고 아저씨 동네 주변에서 좀 떨어진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연락하고, 집을 나섰다.

시끄러운 포장마차 구석자리에 아저씨가 홀로 앉아계셨다. 아저씨는 곧 날 발견하고, 손을 들어올렸다. 나는 간단히 목 인사를 하고 자리로 가 앉았다.

“아저씨, 이런 데서 만나니까 이상하네요. 하하하, 평상이 다였는데...”

“맨날 빵만 먹었지, 이런데서 맛있는 거 한번 못 먹었잖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내가 산다.”

아저씨는 웃는 낯으로 나에게 말했다. 아저씨의 환한 얼굴에 나는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졌을 때, 아저씨는 옷 안주머니에서 빵을 꺼내 건네주었다.

“응?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빵을 가져오셨어요?”

“니가 좋아하잖나. 매일 아침에 내가 챙겨줬는데 이제는 내가 못 챙겨주잖나.”

“에이. 가끔 놀러간다니까요? 이제 비싼 것도 쥐요. 내가 거기서 사먹은 게 얼마데.”

“이거나 받아. 다시는 안 줄 거야. 못 줘 이제...”

아저씨의 고개가 숙여졌다. 숙여진 얼굴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네?? 왜요? 이거 하나 얼마나 한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빵을 가운데 두고 나는 아저씨에게 농담을 던졌다. 내 말을 듣고 아저씨는 허허 웃으시더니 씩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이제 줄 수가 없어. 내가 이제 그 동네에 없을 거거든.”

아저씨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잊었다. 잘 풀렸을 줄 알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아저씨는 나에게 이 사장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6.

평소에도 늦게 일어나는 편은 아닌데, 그 날은 정말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었지. 아마도 이 사장과 약속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랬었을 거야. 멍한 기분이었어. 몇 분이 지났는데도 정신이 차려지지 않아서 수분기없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지. 정신을 다 잡고 흐트러져 있는 이불을 하나하나 접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 그리고는 어제 밤에 준비해 놓은 오래된 정장을 입었지. 어제 밤에는 편찮았던 것 같았는데, 그 날 아침에 다시 입은 정장은 너털너털 해 보이는 느낌이었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지. 거울을 계속 보면 약속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미련 없이 뒤 돌아 슈퍼 철문을 열고 나왔어.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매일 내려가던 내리막길이 그 날은 절벽같이 보였던 거야. 긴장을 풀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절벽처럼 아득해보였어.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아득한 길을 걸어 내려갔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몇 대 없는 이 동네에 내가 오기를 기다린 것 마냥 바로 버스가 내 앞에 멈추더라고. 헛웃음이 났어. 세상이 나한테 너무 매정한 것 같이 느껴져서. 버스에 타서 달리는 내내 신호등들을 봤는데, 빨간불이 없었어. 다 초록불이더라구. 우리 동네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그 회사를 내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지. 그 커다란 건물 앞에 서있으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말이야.

1층 로비에서 예약했다는 확인을 받고 사장실로 안내받았지. 사장실로 들어서니 이 사장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날 반기더라고. 나는 전혀 여유롭지 않았는데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오느라 수고 많으셨죠? 여기 앉으세요.”

이 사장, 그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수록 나는 점점 위축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 때부터 불안한 뭔가를 느꼈지.

“예. 저기...”

“아, 잠시 만요. 갈증 나실 텐데 뭐 마실 거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재개발에 관해 말하고 싶은데요.”

“뭘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다 들어 들이겠습니다.”

“...네.”

이 사장이 말을 꺼낼수록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과연 내가 생각해 온 이야기들이나 제대로 하고 갈수는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한 번 막힌 말은 다시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지 손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 그런 행동을 하면 누구라도 내가 긴장한다는 걸 알아버릴게 분명한데, 알면서도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마르더라고. 그렇게 한 동안 손만 움직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 사장이 내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 나를 안다는 식의 질문이었어.

"근데 낮이 익네요?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 참 앞에 있는 탁자에 고정시켰던 눈을 이 사장에게 천천히 돌렸지. 내가 이 사장이라는 사람을 알 리가 없을 텐데, 그 얼굴이 나도 낮이 익더라구. 이 사장은 눈가를 약간 찌푸리면서 또 물었어.

"굉장히 낮이 익은데... 혹시 대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대학교는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낮이 익어서..."

내 대답에 이 사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 근데 이상하게 정말 나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거야.

"괜찮습니다. 저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는 하네요... 어릴 때 알던 사이같기도 하고..."

"어릴 때요?"

내 말을 듣고 이 사장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 뭐... 그래 봤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내가 말을 해놓고서도 민망하더라구.

"아닙니다. 이 사장님이 저희 동네에서 사셨을 리가 없죠."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예?!"

이 사장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인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아 그리고 보니, 슈퍼하신다고 하셨죠? 제 어릴 적 친구가 슈퍼 집 아들이었는데..."

"....."

"슈퍼 이름이... 동네슈퍼, 맞습니까?"

"네..."

내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 불안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나랑 달랐지.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어.

"어?? 우리 어릴 때 알던 사이 같네요. 하하 이런 우연이, 신기하네요. 우리 어릴 때는 항상 같이 어울렸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랬던 것 같네요..."

이 사장은 쇼파 깊숙이 앉아있던 자세에서 쇼파 끝으로 옮겨 앉으면서 나랑 거리를 더 좁혀 앉았어.

"말 불편하게 하지 말자. 우리 옛날에는 친했잖냐? 나 기억 안나? 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 친했었는데?"

"기억나."

"아직 거기 살고 있었구나. 설마 그 슈퍼가 그 슈퍼라고는 생각도 안했었지.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을 줄은... 하이튼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다."

그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 우리는 가깝고 절친한 이웃이었지. 그 작은 동네에서 또래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는 내 어린 시절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가파른 오르막길을 호기롭게 뛰어 올라가면서 술래잡기를 했던 내 소중한 유일한 소꿉친구가, 내 앞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이 사장이었던 거야. 그 따뜻했었던 기억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이제는 그런 따뜻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멍해지는 느낌이 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것 말고도 자존심의 문제기도 했지. 예전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친구로 웃고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낮은 위치에서 애걸해야 한다는 그 상황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어. 이 사장은 여전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나한테는 사치일 뿐이라 느껴졌지.

"저기... 이제 재개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더 이상의 추억 얘기는 후에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뿐이라 생각했어.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고 까지 생각했으니 말은 다 했지.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만난 거니까. 자, 말하고 싶은 거 먼저 말해."

이 사장은 내 말에 얼굴 한 가득 아쉬움을 비쳤지. 그래도 그도 뭔가를 눈치는 쫓나봐. 금방 기색을 숨겼던 걸 보니.

"응... 재개발... 하지말자. 재개발 말고 그 주위에 편의시설만 만들자. 너도 옛날에 우리 동네 살았었잖아. 그런 동네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애. 다시 한 번 생각해봐."

"계속 얘기해."

그는 내 이야기에 아무 동요없이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계속 말하라는 듯이 보였어.

"굳이 그 동네를 없애야 해? 그 방법 말고도 방법은 많잖아. 뭐... 요즘 리모델링같이 건물 외관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주위에 대형마트나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주인 없는 집만 정리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는거잖아? 너는 그 동네에서 떠난 지 오래지만, 나는 그 동네에서 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 그런 동네를 어떻게 쉽게 내주고 나갈 수 있겠어? 나는 못 나가겠어! 다시 생각해줘!"

처음에는 차분히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 이 사장이라 친구였던 아니었던 간에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내 동네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애걸을 해서라도 그를 설득시키고 싶었어. 그래도 우리 어린 시절엔 둘 다 동네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자고 약속했었거든. 어리고 힘이 넘쳤던 어린 남자아이 둘이서 동네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자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장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봐.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뭔가 비웃는 것 같은 웃음 띄우더니 나한테 말을 하더라.

"당황스럽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좋았는데,,, 일단 사업 얘기를 해야하니까... 음... 일단 전혀 설득력이 없어. 첫 번째 말한 리모델링. 그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게 더 돈 낭비야.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해도 그 불편한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런 곳에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 동네사람들만 있는 곳에? 나고 자란 동네를 재개발해서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가 위로금 주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 잘 생각해봐. 어쨌면 이게 너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있어.”

아까만 해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워서 웃음이 가득했으면서 그래서 내가 작은 희망을 생각하게 했으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

“그깟 위로금 받고 동네를 없애란말이야? 안돼!! 아니... 미안하다. 그냥 동네는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부탁할게. 이 사장도 그 동네에서 자랐잖아? 소중한 기억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용없어. 그 동네는 가만히 놔두기엔 땅 낭비라구. 거기는 그렇게 놔두면 가망이 전혀 없어. 그 동네를 재개발하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는 알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잖아. 이게 내가 제일이 되는 방법이야. 난 이미 결정했어. 미안한 일이지만 기간 내에 정리하고 나가줘. 위로금이라도 줄 때.”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봐! 동네에서 제일 가는 사람? 그건 우리 동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다 밀어버리면 그게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제발.... 우리 함께 바라보던 꿈이 있었잖아. 난 이제 제일이 되길 바라지 않아. 그저 우리 동네... 그거면 돼.”

“어릴 적 친구를 잠시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 분명 나도 어린 시절이 당신 덕에 소중한 게 기억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이러는 거야... 연이 되면 다음번에 좋은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조심히 가라.”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커왔는데 말이야. 동네입구에서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옛날의 어린 내가 이 오르막을 뛰어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 내 뒤에는 또 다른 어린 아이가 따라 뛰어가고 있었지. 아이들은 없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건 허름한 동네슈퍼였어. 오래돼서 간판의 이름도 잘 보이지 않는 ‘동네슈퍼’.

7.

며칠 전 정씨 아저씨와 포장마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취해버렸다. 어떻게 집까지 찾아온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쓰린 속이 더 이상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 일상으로 돌아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찍어낸 듯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정씨 아저씨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걱정이 되어 알고 있었던 연락처로 연락을 했지만 정갈한 여자의 목소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반복해 말해 줄 뿐이었다.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기다렸던 주말이 되어 긴 잠을 잤다. 혼자 사는 집은 적막했다. 시계 바늘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있다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세탁기로 빨래를 돌렸다. 색깔 구분 없이 무조건 한 움큼씩 옷을 잡아넣고 있던 중에 물컹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정씨 아저씨와 술을 마시던 그날 밤 입고 나갔었던 면바지였다. 물컹한 것은 정씨 아저씨가 나에게 준 마지막 크림

빵이었다. 동그랗고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던 크림빵은 한 쪽에 구겨져 있던 면바지 속에서 그 모양을 잃어버렸다. 맛있어 보이기만 하던 크림빵은 구겨지고 하얀 크림은 걸 비닐에 덕지덕지 묻어있었다. 크림빵을 세탁기 위 선반에 올려두고 나머지 세탁물을 세탁기에 대충 구겨 넣고 세탁기 버튼을 눌렀다. 선반 위에 놔두었던 크림빵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텅 빈 공터였다. 오르면 숨이 차오르는 오르막길도 없고, 출근이 늦어서 가끔 뛰어 내려가면 무섭기까지한 내리막길도 없었다. 오르막, 내리막 없이 평평한 공터만 있을 뿐이었다. 동네 꼭대기쯤 있어 집에 가기는 힘들지만 가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보던 맑은 하늘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처럼 볼 때마다 챙겨주고 걱정해주던 옆집 할머니도 없었다. 아침마다 빵을 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가장 친했던 정씨 아저씨도 텅 빈 공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공터에는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세워질 것이다. 오래된 건물들과 길들이 없어지듯 그 곳에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도 모두 없어져 버렸다. 내 손에 쥐어진, 이제는 구겨져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크림빵만이 그 동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